

<참 좋은 나라는 청렴으로부터>

좀체 올 기척이 안보여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봄이 코앞으로 다가온 작년 2월 말이었다. 아이들은 봄방학을 했고 다음 학년 누구와 같은 반이 되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던 그때, 나도 마음이 바빠져 미뤄왔던 일을 하려고 하루 휴가를 받았다.

“늦겠다. 빨리 옷 입어.”

둘째딸이 목이 부어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도통 낫지를 앓고 부쩍 기운도 없으며 밥도 잘 먹지 못했다.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좀 더 큰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아야지 생각했지만 좀처럼 틈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들 새 학기가 시작되려니 나도 마음이 바빠졌다. 그렇게 종합병원에서 피검사를 위해 채혈을 하고 미리 예약해둔 초음파실에서 목을 본 다음 진료를 받기 위해 이비인후과에 올라갔다.

“하아. 저기 지금 바로 소아과로 가보세요. 바로 진료 볼 수 있도록 연락해 놓을 테니 지금 바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소아과로, 그리고 혈액 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 정신없이 발길을 옮기며, 대학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없다고 마음을 다독이며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에 접수를 하고 다시 피검사를 했다. 하지만 수치가 좋지 않아 바로 수혈이 시작되었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다음날 골수검사가 이어졌고 작은 딸은 백혈병진단을 받았다. 상세 불명의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이란 병명이 나오고, 바로 이어 급하게 항암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우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나을 수 있다. 우리 딸은 나을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나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딸아이 항암에 집중했다. 작은 딸 머리가 다 빠지고 토를 하고,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에 참으로 암담했지만 그 와중에도 희망은 싹텄다. 백혈병 중에서도 완치율이 높은 림프성백혈병, 그것도 표준위험군에 속해 90%에 달하는 완치율에 희망이 생겼고 항암 첫 번째 관문인 관해에 성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한숨 돌릴 여유도 생겼다. 무지했던 병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다른 의료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 의술과 치료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렇게 의료선진국에 살고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희망도 커져갈 무렵 옆 침대 보호자가 나에게 물었다.

“서정이 엄마 직장 다녔다면서요? 실업급여 신청했어요?”

“실업급여신청이 되나요? 자발적인 퇴사인데요?”

“실업급여 해당돼요. 아이 병간호 때문에 퇴사한 거라 당장은 안 되고 입원 끝나고 통원치료 할 때 교수님한테 의뢰서 써달라고 해서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고맙습니다. 모르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걱정이었다. 무작정 퇴사를 하고 아이를 살린다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아이가 셋, 내가 벌지 않으면 아파트 대출금에 세 아이 학원도 보내기 힘들었다. 더구나 백혈병은 치료비가 많이 들기로 소문난 병이었다. 보험도 지인들 부탁에 여러 개 들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다 해약하고 보장성이 작은 보험 하나만 남아있었다. 후회됐지만 지나간 일이다. 그런 와중에 실업급여가 나오면 당분간은 큰 걱정 없이 아이 암 투병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느덧 아이의 힘들어 하는 모습에 더디기만 했던 병원생활도 기어이 지나고 퇴원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슬슬 병원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무과에서 중간진료비 정산을 부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병원비가 적게 나왔다. 암 환자는 산정특례혜택으로 입원진료의 5%만 내면 되는 것이었다. 더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

주기도하고 또 여러 재단에서는 병간호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생활비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아이가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정말 좋은 나라였다. 병원사람들도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제가 살면서 우리나라 좋은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느꼈어요.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구나 하구요. 아프지 않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의료 혜택이 잘 되어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솔직히 병원도 복지도 없는 가난한 나라에 살았으면 이렇게 치료한번 못해보고 아이 잃을 생각하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었어요. 저도 예전에는 세금 많이 내고 나한테는 혜택도 없는 것 같고 국회 앞에서 데모하는 사건 날 때마다 뭐 이런 나라가 있어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저도 큰일 당하고 보니 이 나라에 살아서 다행이지 하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나라 복지에 대해 칭찬했다.

작은 딸은 다행히 관해와 공고요법이란 2 달간의 항암치료를 무사히 끝내고 당분간 통원치료 결정이 났다. 그리고 나는 담당교수님께 통원치료 가능하다는 의뢰서를 받아서 얼마 뒤 고용보험센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갔다.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없어 퇴사한 거 맞으시죠?”

“네.”

얼떨결에 대답했지만 그건 알아보지도 못했다. 우선 아이가 큰 병에 걸렸고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사직서 쓰고 아이 항암에 매달렸다. 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다. 작은 회사에 대체인력이 당장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회사에 얘기를 하면 서류는 바로 작성해 줄 것이다. 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당분간 아이가 완치될 때까지 아이 곁에 있을 생각이었고 더구나 아이를 돌봐줄 다른 사람도 없었다. 그저 신청

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왔다가 ‘잘 알아보고 오는 건데……. 헛걸음 했다.’ 하고 뒤돌아 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였다. 외래에서 고용보험 이야기를 해줬던 보호자를 다시 만났다.

“실업급여 신청했어요?”

“아니요. 제가 아직 다시 회사 다닐 마음도 없고 애들 돌봐줄 사람도 없어서 신청을 못했어요.”

“아이고 그냥 돌봐줄 사람 친척 중에 한 사람 넣고 구직활동만 하고 취업 안 하면 되지요. 몇 달간 그렇게 실업급여 받으면 금방 끝나는데.”

“그렇긴 한데, 좀 그래서요.”

“참 서정엄마도 순진하네.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뭘.”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망설였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계산해 보니 눈 질끈 감으면 몇 백이란 큰돈이 생기는 것이었다. 더구나 큰 병으로 입원생활을 하다 보니 나라와 재단에서 주는 혜택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편법도 알려주었다. 개인 사업이나 작은 회사에 다니면 남편 소득을 속인다거나 몇 개월간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거나 하면 된다는 것을 말이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아이 셋에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었고 아이도 많이 아프다 보니 돈 걱정이 많이 되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겼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프데 그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나 자신도 속이고 싶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순진하다 얘기하고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하는데 내가 바보처럼 사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이번 실업급여는 나도 눈 한번 질끈 감고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 작은 딸 어때?”

“오늘 수치도 좋고 별 이상 없어.”

“잘됐다.”

“근데 나 저번에 얘기한 실업급여 받아보려고”

“못 받는다며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냥 돌봐줄 사람 친척 한 사람 쓰고 구직활동하면서 취업은 안하면 된대 다 그렇게 한다고 말이야.”

“하지 마! 나는 회사에서 볼펜 한 자루 갖고 와도 불편한데 당신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거짓말 하고 불안하고 힘들어. 그리고 당신이 불안하면 애들도 덩달아 불안해져.”

“그래도 다들 받는다는데……. 내가 순진하대.”

“그런 사람은 그러다 언젠가는 벌 받는다 생각해. 우리 조금만 아끼고 살면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당신이 그랬잖아.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라고 남들이 그러다고 너도 나도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도 영향이 있지. 세금 왕창 늘어나고 애도 아픈데 나쁜 짓 하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마음 편히 살자.”

“그러게 나는 괜히 손해 보는 느낌이었는데 당신 말 들으니깐 그렇다. 우리 딸 위해서라도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벌 받을라.”

생각해 보니 바로 얼마 전까지 산정특례혜택을 받으면서 복지국가에 살고 있는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그새 마음이 간사해진 내 마음이 부끄럽고 반성이 되었다. 나도 결혼하고 16년을 살면서 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을 당했을 때 대한민국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청렴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